

■ 국민참여당 15일 발족... 광주·전남 친노인사 움직임은

# 당선 되려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당으로 친노신당인 국민참여당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친노인사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으려 하는 친노진영은 크게 두 그룹이다. 오는 15일 창당준비위 발족식을 갖는 '국민참여당'과 시민정치운동을 표방하며 현실정치에 뛰어든 '시민주권모임'이다.

국민참여당은 '친노신당'이라는 별칭을 가질만큼 노 전 대통령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로는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전면에 나섰다. 하지만 이 전 실장 외에 지역 친노인사들의 참여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민주당 당원이기 때

## 대부분 盧 정신계승 공감속 참여 인사 저조 광주시장-구청장 후보군 연대 여부 관심사

문이다. 국민참여당의 창당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친노인사 중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참여 여부에 촉각이 쏠려 있다.

하지만 정 전 수석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정 전 수석은 지난달 "MB정부의 퇴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혀 '국민참여당'보다는 민주당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그룹으로는 '시민주권모임'이 있다. 이용섭·조영택 의원,

정찬용 전 수석, 이병완 전 실장, 이형석 전 비서관, 민형배 전 비서관 등으로 지역 친노인사들이 망라돼 있다. 이들은 시민주권모임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4대강 사업 저지, 세종시 수정안 반대 등 현실 정치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시민주권모임 상임운영위원인 이용섭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할 모임은 '시민주권모임'이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친노진영의 교통정리는 이곳에서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밖에 이용섭 의원이 회장을 맡

고 있는 참여정부 시절 참모와 관료 출신 모임인 '청정회'가 있지만 이 모임은 단순 친목모임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대표적 친노인사들은 노무현 정신의 계승·발전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의 정치 지형상 방향타는 국민참여당보다는 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영남권과 달리 국민참여당이 바람을 타지 않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노무현 정신'이라는 동지적 감정이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연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광주시장 후보로 경쟁하고 있는 이용섭 의원, 조영택 의원, 정찬용 전 수석과 구청장 후보군인 이형석 전 비서관 등과의 연대도 관심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농성·매월동 장례식장

### 서구의회, 허가 재고해야

광주 서구의회가 법적 권한행사와는 상관없이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청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 주민과 장례업체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서구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와 관련, 서구청장은 장례식장 허가를 재고해 달라고 청원했다.

서구의회는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원해소 방안으로 구청장이 허가를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번 청원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의견서에서 농성동 장례식장이 인근에 있는 터미널·백화점 등 쇼핑복합타운에 들어섬으로써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고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매월동의 경우 개금산 조망권 침해, 자연녹지 훼손 등에 따른 주민 반대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북 쌀지원 재개하라”

11일 서울 성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북쌀지원재개로 쌀대란 해결과 남북관계개선 촉구 각계각층 만인 선언' 행사에 참가자들이 정부의 대북쌀지원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보즈워스 연내 방북' 확정

미국 국무부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 행정부 유관부처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팀을 이

끌고 방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이미 북한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부는 보즈워스 대표의 구체적 방북시기는 북미간에 협의가 진행중인 상태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13~19일)이 끝난 후 늦어도 연내에는 이뤄지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광주시 실제 투자 실적 '미흡'

### 최근 3년 MOU 체결 145건 중 43곳 불과

## 조호권 의원 주장

광주시가 국내외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나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실제 투자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원(민주·북구4)은 11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투자 실현율을 도마에 올렸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지난 2007년 이후 최근 3년간 투자유치 실적은 국내기업 122건 1조143억원, 국외기업 23건 1억9천800만 달러에 달

했다.

그러나 국외기업 실제투자는 4개 기업 460만달러 수준에 그쳐 투자실현율이 건수 대비 17.3%, 액수대비 2.3%에 그쳤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내기업의 경우 실제 투자업체는 39개사 784억원으로, 건수 대비 31.9%, 액수 대비 7.7% 실현율에 불과했다. 투자유치 금액도 지난 2007년 4천524억원이었으나, 지난해 3천867억원, 올해 7월말 현재 1천128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체계적인 투자기업 관리와 실질적인 투자 제고차원에서 투자기업 사업관리시스템과 투자유치 전담 프로젝트메니저(PM)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광주시 관계자는 "MOU실현율은 건수 대비 40% 이상, 액수 대비도 10~30%대에 달한다"며 MOU를 체결했다라도 기업의 투자는 단시일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유치 실적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市 조성 '지역펀드' 타지로 샌다

### 140억 전략펀드 서울 창투사에 대행 계획

## 양혜령 의원 지적

광주시가 지역 창업투자사(창투사) 설립을 포기하는 대신 서울지역의 창투사와 손 잡고 '지역 펀드' 운용할 방침이어서, 지역 투자자금의 타 지역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1일 광주시의회 양혜령 의원(민주·동구1)에 따르면 광주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시는 지역 창투사 설립이 무산되면서 대안으로 광주시와 지역 금융권, 서울지역 창투사가 공동 출연하는 '전략산업진흥펀드'를 조성하고, 자금 운용은 서울지역 투자사에 맡길 계획이다.

시는 창투사 설립 예산으로 확보된 15억원 중 7억원을, 지역 금융권과 투자자·서울지역 창투사가 60여억원을 자금을 모아 70억원 규모의 '전략산업진흥펀드'를 조성한 뒤 여기에 중소기업이 벤처투자와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창업지원기금(모태펀드) 70억원을 받아 총 140억원 규모의 투자 조합을 결성, 펀드 운용은 서울지역 창투사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투자조합 운용방식은 지난 2006년 광주시가 테크노파크에 시비 4억원 출연과 광주은행 10억원 등 지역자금과 타 지역 창투사를 통해 80억원을 조성한 '광주전략산업펀드'를 모델로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략산업펀드'는 서울지역 업체가 운용하면서 당초 계획한 광주지역과 타지역의 투자비율이 6대 4가 아닌 5대 5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월말 현재 광주지역 업체에 실제 투자된 금액은 33억원(52%)에 그친 반면 성남·안양·시흥·영국·홍콩 등 타 지역 업체에는 30억9천만원(48%)이 투자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투자금을 운영할 창투사는 자금조달 능력과 자금운용 노하우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지역에는 마땅한 곳이 없어 서울지역에서 물색 중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 내년 예산 2조8,550억

### 올보다 5.2% 증가... 하남산단외곽도로 개설 115억

광주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2조8천550억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는 11일 2조8천550억원(일반회계 2조1천671억원, 특별회계 6천87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2조7천135억원보다 1천415억원(5.2%)이 증가한 것이다.

경제 분야 주요 투입예산은 가전로 북북화육성사업 85억5천만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65억원, 광산업 3단계 사업 62억5천만원, 세계김치연구

소건립 50억원, 공공근로사업 23억8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2억원 등이다.

사회·복지분야는 고령화친화제품 체험관 건립 72억5천만원, 장애인재활전문병원건립 43억8천만원, 퇴행성관절염전문병원건립 42억원 등이다.

문화 분야는 컴퓨터 형상 이미지 제작소인 CGI센터 건립에 110억원, 시립민속박물관 시설 확충과 국립박물관-비엔날레전시관 경관 설치 각

40억원, 전문문화관건립 36억원 등이다.

환경분야는 영산강지류 친수공간 조성 70억원, 생활권 녹색도시화 53억원,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조성 50억5천만원, 광주공원 생태숲 복원 33억원, 시립 산소수목원 조성 30억원 등이다.

또한 건축·토목분야는 하남산단의 광도개설 115억원, 광주~화순 도로 확장 100억원, 행림마을-시경계 경사 완화 92억2천만원, 환경강생태하천조성 75억원 등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청정의 꿈!**

본사업의목적은... (text partially obscured)

문의: 02-1234-5678

www.puritydream.com